

2026 군무원 지역인재 국어

응시번호 _____ 성명 _____

점수 _____ 점

1. 밑줄 친 부분이 어법에 맞지 않는 것은?

- ① 나는 잠깐 서점에 들려서 새로 나온 책 몇 권을 샀다.
- ②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려서 사람들이 두리번거렸다.
- ③ 동생이 감기가 심하게 들려서 한동안 꿈쩍도 못 했다.
- ④ 크고 무거운 자동차가 번쩍 들려서 모두 깜짝 놀랐다.

1

해설 ① [문장다듬기 어법]

‘지나는 길에 잠깐 들어가 머무르다’라는 의미로 쓰인 ①은 ‘들르다’이다. ‘들르다’는 ‘들르다-들러-들르니-들려서’로 활용한다. 나머지 모두 ‘들리다’이며 ‘들리다-들리어-들려-들리니’로 활용한다.

오답 피하기

- ② ‘들다’의 피동사로, 귀로 소리를 듣다의 뜻이다. ‘들리다-들리어-들려-들리니’로 활용한다.
- ③ ‘들리다’는 ‘병에 걸리다’의 뜻이며 ‘들리어-들려-들리니’로 활용한다. 참고로 ‘몸에 병이나 증상이 생기다’의 뜻인 ‘들다’가 있으며 ‘들다-들어-드니-드오’로 활용한다. 이 경우 ‘들리다’는 ‘들다’는 유사한 뜻의 단어로 보면 된다.
- ④ ‘들리다’는 ‘들다’의 피동사로, 물건이 아래에서 위로 올려지는 상황을 나타낸다. ②와 같은 활용이다.

2. 밑줄 친 단어의 한자가 다른 것은?

- ① 겨울철에는 노후 배관의 동파 사고가 잦다.
- ② 노후 자금이 넉넉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 ③ 이번에 노후 시설을 모두 교체하기로 했다.
- ④ 노후 차량의 매연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해설 ② [한자어, 한자]

②의 ‘노후(老後)’는 ‘늙은 뒤의 시기’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나머지 ‘노후(老朽)’는 ‘오래되어 낡음’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노후(老後)	老 (늙을 로): ‘늙다’, ‘노인’
	後 (뒤 후): ‘뒤’, ‘후에’, ‘나중’
노후(老朽)	老 (늙을 로): ‘늙다’, ‘오래되다’
	朽 (썩을 후): ‘썩다’, ‘낡다’, ‘쇠하다’

3. 반의(反義) 관계의 성격이 나머지 셋과 가장 다른 것은?

- ① 검다 - 희다
- ② 죽다 - 살다
- ③ 크다 - 작다
- ④ 뜨겁다 - 차갑다

3

해설 ② [단어 의미론]

반의어는 성격에 따라 등급(정도) 반의어와 상보 반의어로 나뉜다. ②번의 ‘죽다-살다’는 중간 단계가 존재하지 않고 어느 한 쪽을 부정하면 다른 쪽이 성립하는 상보 반의어이다. 나머지는 ‘검다-희다(회색 등 중간색 존재)’, ‘크다-작다(중간 크기 존재)’, ‘뜨겁다-차갑다(미지근함 등 중간 온도 존재)’와 같이 정도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등급 반의어이다.

참고 반의어(反義語) 관계

서로 상반되는 의미를 가지는 둘 이상의 어휘

- ① 상보 반의 관계: 중간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반의어로, 두 항목을 동시에 부정할 경우에 모순이 일어난다.

예) 살다 - 죽다, 남자 - 여자

- ② 정도 반의 관계: 중간 개념이 존재하는 반의어로 두 항목을 동시에 부정해도 모순이 일어나지 않는다.

예) 길다 - 짧다, 덥다 - 춥다

- ③ 방향 반의 관계: 방향상의 대립을 나타내는 경우나 맞선 방향으로의 이동이나 변화를 나타내는 단어쌍이다.

예) 위 - 아래, 가다 - 오다

4. 로마자 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속리산’은 [송니산]으로 발음되므로 ‘Songnisan’으로 적는다.
- ② ‘광희문’은 [광히문]으로 발음되므로 ‘Gwanghimun’으로 적는다.
- ③ ‘낙동강’은 [낙동강]으로 발음되므로 ‘Nakdonggang’으로 적는다.
- ④ ‘대관령’은[대:괘령]으로 발음되므로 ‘Daegwallyeong’으로 적는다.

4

해설 ② [외래어, 로마자 표기]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표준 발음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ㄴ’은 ‘l’로 소리 나더라도 ‘ui’로 적는다.(제1항 붙임 1 규정) ‘광희문’의 경우 [광히문]으로 발음되더라도 ‘희’는 ‘hui’로 적어야 한다. 이는 ‘Gwanghuimun’(O)

오답 피하기

- ① ‘속리산’은 [송니산]으로 발음되는 비음화 현상을 반영하여 ‘Songnisan’으로 적는다.
- ③ 된소리되기 현상을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 본래의 형태인 ‘Nakdonggang’으로 적는다.
- ③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 그러나 ‘ㄹㄹ’은 ‘ll’로 적는다

5. 밑줄 친 용언의 불규칙 활용 양상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 ① 결전을 벼르다.
- ② 목적지에 이르다.
- ③ 쌀에서 뉘를 고르다.
- ④ 군자와 소인은 다르다.

5

해설 ② [이론 문법]

‘이르다(至)’는 활용 시 어미 ‘어’가 ‘러’로 변하는 ‘러’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이다(이르+어 → 이르러). 그러나 나머지 ‘벼르다’, ‘고르다’, ‘다르다’는 모두 모음의 어미 앞에서 ‘ㄹ’이 덧생겨 ‘-르러’, ‘-르라’가 되는 ‘르’ 불규칙 용언이다.(벼르+어 → 벼러, 고르+아 → 골라, 다르+아 → 달라).

6. 사이시옷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바닷가
- ② 아랫방
- ③ 예삿일
- ④ 월셋방

6

해설 ④ [이론 문법]

‘월셋방’(O)이 올바른 표기이다. 사이시옷은 순우리말과 순우리말의 합성어 또는 순우리말과 한자어의 합성어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가거나,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 등에 표기한다. ‘월세방(月貰房)[월세뽕]’은 사이시옷은 나타나지만 한자로만 이루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예외 ‘굿간, 셋방, 숫자, 찻간, 텃간, 횃수’

오답 피하기

- ① ‘바닷가[바다까/바달까]’는 순우리말인 ‘바다’와 ‘가’가 결합한 합성어로, 뒤 단어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므로 사이시옷을 표기한다.
- ② ‘아랫방’은 순우리말인 ‘아래’와 한자어 ‘방(房 방 방)’이 결합한 합성어로, ‘아랫방[아래뽕/아래뽕]’과 같이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므로 사이시옷을 표기한다.
- ③ ‘예삿일[예:산닐]’은 한자어인 ‘예사(例事)’와 순우리말인 ‘일’이 결합한 합성어로, ‘ㄴ’ 소리가 덧나는 현상이 나타나므로 사이시옷을 표기한다.

7.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가) 이번 스승의 날에는 중학교 3학년 때 담임[다임] 이셨던 박 선생님을 찾아뵙기로 했다.
 (나) 창고[창꼬]에는 수확한 곡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다) 사람이 많은 지하철을 탈 때는 다른 사람의 발을 밟지[밥찌]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라) <춘향전>의 배경으로 유명하며 경내에 춘향의 사당이 있는 남원 광한루[광:한누]로 향했다.
 (마)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위급한 상황에서는 공권력[공뀐녁]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바) 날씨가 추워 장롱에서 두꺼운 솜이불[소미불]을 꺼내 덮었다.
 (사) 향하고 있는 쪽을 뜻하는 말 ‘앞’이나 사물의 오른 쪽이나 왼쪽의 면을 뜻하는 말 ‘옆’의 받침에는 표음[피으블] 써야 한다.

- ① (가), (라), (바), (사)
 ② (나), (라), (바), (사)
 ③ (가), (다), (마), (사)
 ④ (다), (라), (마), (바)

7

해설 ③ [표준 발음법]

창고[창고], 광한루[광:할루], 솜이불[솜:니불]

오답 피하기

(사): 한글 자모의 이름과 받침소리는 표준어 규정 제16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표’의 경우 ‘피윽이[피으비], 피윽을[피으블] 피윽에[피으베]’로 언급했다.

8. 다음 글의 주된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토함산의 서쪽 기슭, 높지도 낮지도 않은 터전에 남향해서 동서로 이어진 이 석단의 오른쪽에는 이 절 정계단인 청운교와 백운교가 있고 이 둘 계단을 올라서면 자하문을 거쳐서 대웅전 앞뜰이 된다. 석단의 왼쪽 계단은 연화교와 칠보교, 이 다리 위 층대를 올라가면 안양문을 거쳐서 극락전 앞뜰이다.

이 안양문과 자하문 사이에는 범영루가 우뚝 솟아 있어서 이 누마루 아래를 통해서 안양문에서 청운교 다리 밑을 거쳐 가는 꿈길 같은 보랑이 이어져 있고 불보살들이 옥보를 옮기며 오르내리는 계단으로 만들어진 청운교와 백운교의 중앙 계단에 서서 단상을 우러르면 자하문과 범영루 사이로 석가탑과 다보탑이 보랏빛 아침 햇살을 받는다.

- ① 묘사
 ② 예시
 ③ 비교
 ④ 분석

8

해설 ① [비문학]

글은 토함산 기슭에 위치한 불국사의 구조와 풍경을 마치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구체적이고 감각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석단, 계단, 다리, 문, 누마루 등의 공간적 배치와 그곳을 비추는 아침 햇살 등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9. (가)~(다) 중 주제가 같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가) 청산(靑山)은 엿데하야 만고(萬古)에 프르르며
유수(流水)는 엿데하야 주야(晝夜)에 굿디 아니는
고
우리도 그치디 마라 만고상청(萬古常靑) 호리라
- 이항, 「도산십이곡 11곡」 -
- (나) 어버이 사라신 제 섬길일란 다 하여라
디나간 후면 애달다 엿디하리
평생(平生)에 고틈 못할 일이 잇뿐인가 하노라
- 정철, 「훈민가」 -
- (다) 반중(盤中) 조홍(早紅)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유자(柚子)가 아니라도 품음직도 하다마는
품어 가 반길 이 없을 새 글로 세워하나이다
- 박인로, 「조홍시가」 -

- ① (가), (나)
② (나), (다)
③ (가), (다)
④ (가), (나), (다)

9

해설 ② [고전 문학]

(가)는 학문 수양에 대한 의지와 다짐을 노래한 작품이다. 변하지 않는 '청산'과 '유수'의 속성을 본받아 학문과 수양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나)는 부모님께 효도를 다해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를 다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뒤에는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효의 정신을 강조한다.

(다)는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효심을 노래한 작품이다. 홍시를 보고 부모님을 떠올리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공양할 수 없는 슬픔과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나)와 (다)는 모두 '부모님에 대한 효(孝)'를 주제로 다루고 있으므로 주제가 같다.

10. (가)~(다)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 뉴로버스란 신경(Neuron)과 우주(Universe)의 합성어로 신경 신호로 만들어진 세상의 모형이다. 뇌가 뉴로버스와 실존 세계 간의 차이를 인지했을 때 인지 부조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때 뇌는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다.
- (가) 그러나 인간의 뇌가 생각에 맞도록 팩트를 바꾸려는 의지도 생존과 적응에 중요하며 개인이나 인류 문명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개인이나 집단의 생각이 이념화되면 이렇게 생각에 맞도록 팩트를 바꾸어나가려는 노력이 가속화된다.
- (나) 생존과 적응을 위한 기관으로서 뇌는 팩트에 맞도록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다. 위험한 상황에서는 숨거나 활동을 멈추는 것이 본능이며 먹잇감이 있을 때는 사냥을 해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 (다) 다만 서로 주장하는 팩트가 다를 때 개인 간, 집단 간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며 서로의 생각대로 팩트를 바꾸기 위해 상대를 제거 하거나 배제하는 작업을 하기도 한다.

- ① (가) - (나) - (다)
② (가) - (다) - (나)
③ (나) - (가) - (다)
④ (다) - (가) - (나)

10

해설 ③ [비문학]

(나): 글의 도입부에서 뇌가 '인지 부조화' 상태에 빠졌을 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나)는 첫 번째 선택지인 '합리적 방식'을 다룬다. 생존과 적응을 위해 뇌는 외부의 사실(팩트)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이 가장 이치에 맞는(합리적인) 행동임을 설명한다.

(가): (나)의 내용을 받은 뒤, (가)는 '그러나'라는 접속어를 사용하여 반대되는 상황을 제시한다. 사실에 생각을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내 생각에 사실(팩트)을 맞추려는 의지도 인간에게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것이 문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을 설명하며, 생각을 굽히지 않고 현실을 변화시키려는 인간의 능동적인 측면을 언급했다.

(다): (다)는 (가)에서 말한 생각에 맞게 팩트를 바꾸려는 노력이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 발생하는 부작용을 다룬다. 서로 다른 팩트를 주장하는 사람이나 집단이 충돌할 때, 타협하지 않고 상대를 제거하거나 배제하려 한다는 갈등 상황을 제시하며 글의 내용을 마무리한다.

11.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근 거시 노피 떠서 萬物을 다 비취니
 ㉡밤등의 光明이 너만하 니 또 있느냐
 ㉢보고도 말 아니하니 내 별인가 하노라
 - 윤선도, 「오우가」 중에서 -

- ① ㉠은 세상을 비추는 태양을 가리키는 것으로, 임금의 덕목을 상징한다.
- ② ㉡은 어두운 밤에 세상을 비추는 달을 가리키는 것으로, 임금의 은혜를 상징한다.
- ③ ㉢은 경솔하지 않은 선비로서의 덕목을 나타낸다.
- ④ ㉠과 ㉡은 작가의 소망과 기원의 대상으로서의 원형적 이미지를 나타낸다.

11

해설 ③ [고전 문학]

㉠인 ‘보고도 말 아니하니’는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침묵하는 달의 속성을 말한다. 함부로 말하지 않고 언행을 삼가는 선비의 신중한 태도를 상징한다.

오답 피하기

- ① ㉠은 밤하늘에 뜬 달을 가리킨다.
- ② ㉡의 ‘광명’은 달이 가진 밝은 속성을 의미한다. 임금의 은혜와 관련이 없다. 달 그 자체의 변함없는 성품을 예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④ ㉠과 ㉡은 작가가 예찬하는 자연물(달)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지, 소망이나 기원의 원형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참고 ‘오우가’ 제6수 해설

작은 것이 높이 떠서 온 세상을 다 비취니
 한밤중에 광명이 너만한 것이 또 있겠느냐?
 보고도 말을 하지 않으니 나의 별인가 하노라.

제6수는 달(竹)을 노래한 것인데, 달이란 작은 존재로 장공(長空)에 홀로 떠서 세상만 비출 뿐 인간의 미.추.선.악을 포집지도 험뜯지도 않아 좋다고 했다.

[12~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로봇공학과 인공지능의 발전이 매우 빨라지면서 이 기술들이 앞으로 가져올 사회적 변화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요점은 컴퓨터와 로봇들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얼마나 대체할 것이냐는 점이다.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이 고용이나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과거에도 새로운 산업이 발달해서 기존 직업이 사라지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새로운 직업이 더 많이 창출되면서 경제와 고용의 규모가 커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기술 발전은 과거보다 훨씬 빨라서 사람들이 직업의 변화에 적응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게다가 새로운 기술로 대체 가능한 단순 기능자와 그렇지 않은 고급 기술자 간의 임금 격차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술 발전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만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2. 앞글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문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 ②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여 문제 상황에 적용하고 있다.
- ③ 문제 상황에 대한 견해들을 중립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④ 글쓴이의 견해와 대립하는 견해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주장을 펼치고 있다.

12

해설 ④ [비문학]

글쓴이는 로봇공학과 인공지능 발전이 고용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견해를 먼저 제시한 후, 이러한 낙관적 태도가 갖는 한계(적응의 어려움, 임금 격차 심화)를 언급했다.

오답 피하기

- ① 원인 분석에 치중하기보다 기술 발전의 양면성과 글쓴이의 비판적 견해를 서술하고 있다.
- ②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여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다.
- ③ 중립적 서술에 그치지 않고, 기술 발전을 긍정적으로만 보는 태도를 ‘근시안적’이라고 비판하며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고 있다.

13. 밑글의 중심 생각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신기술 관련 산업 직업군의 소득 수준이 사양 산업 직업군에 비해 점점 높아지고 있다.
- ② 의사들은 의료 진단 AI의 도움으로 수천 장의 MRI 영상을 일일이 보는 수고로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 ③ 무인 키오스크가 확산되면서 디지털 기기 조작에 서툰 노년층이 상품을 주문할 때 큰 불편을 겪게 되었다.
- ④ 슈퍼컴퓨터와 AI 모델을 활용하여 대규모 데이터를 정밀하게 처리함으로써 기상 예측의 정확도가 높아졌다.

13

해설 ① [비문학]

글에서는 새로운 기술로 대체 가능한 단순 기능자와 그렇지 않은 고급 기술자 간의 임금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신기술 관련 산업 직업군(고급 기술자)의 소득 수준이 사양 산업 직업군(단순 기능자 등)에 비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사례는 이러한 임금 격차 심화 현상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②, ④ 기술 발전의 긍정적인 측면(편의성 향상, 정확도 향상)만을 보여주므로, 기술 발전의 부정적 측면을 경계하는 글쓴이의 중심 생각과 거리가 멀다.
- ③은 기술 발전으로 인한 불편함을 나타내지만,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임금 격차 심화'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다.

[14~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영상을 싣는 매체를 두고 '매체 죽(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들은 책과 달리 매체의 내용을 긴장이나 노력 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수동적 수용에 그칠 뿐이라고 보는 것이다. 독서가 논리적 사고를 자극할 수 있는 데 비해 영상 감상은 무비판적 수용에 그친다고 결론 내린다.

(가) 최근에는 영상 매체가 문자 매체에 비해 우월함을 전하는 담론이 더 늘고 있다. 영화를 두고 발터 벤야민은 시각적 접촉성을 가진 매체가 등장했다고 보았으며 이것은 새로운 감각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했다. 그는 오히려 독서가 줄 수 없는 감각 확장의 기회를 영화가 제공할 수 있음을 간파했다.

(나) 특정 매체가 근본적으로 저급하며 지적을 할 일이 아니다. 매체의 문제점을 교정할 뿐 아니라 새로운 쓰임새를 찾아내어 이것을 사회에 널리 알려 적극 활용토록 하는 지혜를 전하는 매체 문식성(미디어 리터러시) 전파에 더 힘을 보태야 한다.

14. 밑글의 핵심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매체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 ② 문자 매체는 논리적 사고를 자극할 수 있는 매체이다.
- ③ 영상 매체는 능동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매체이다.
- ④ 매체의 특성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을 우선시해야 한다.

14

해설 ① [비문학]

이 글은 영상 매체를 단순히 수동적이라고 비판하는 기존의 시각을 넘어, 영상 매체가 가진 감각 확장과 같은 새로운 가능성을 인정해야 함을 언급한다. 궁극적으로는 매체의 우열을 가리기보다, 매체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매체 문식성(미디어 리터러시)'을 길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5. (가), (나)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 그러나, (나) 따라서
- ② (가) 그리고, (나) 그래도
- ③ (가) 그러나, (나) 그리고
- ④ (가) 따라서, (나) 그래도

15

해설 ① [비문학]

(가) 앞부분에서는 영상 매체를 수동적인 것으로 폄하하는 부정적 인식을 다루고 있다. 이어지는 (가)에서는 영상 매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발터 벤야민의 견해가 제시되므로, 내용이 대조적으로 전환되는 '그러나'가 가장 적절하다.
(나)는 매체의 우열을 따지는 비판에 머물지 말고, 매체 문식성 전파에 힘써야 한다고 언급했다.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접속어인 '따라서'가 가장 적절하다.

16. 밑줄 친 부분이 맞춤법에 맞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가) 사소한 일로 친구와 옥신각신하다가 금새 화해했다.
(나) 전국 곳곳에서 우리말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행사가 있었다.
(다) 저작권 문제라든지, 디자인 침해 등 문제가 과도하게 생긴다면 대응에 나설 것이다.
(라) 태백산맥은 남북으로 길게 뻗쳐 있어 영동 지방과 영서 지방으로 나뉘는 기준이 된다.
(마) 복부를 한 대 맞은 사내는 한동안 마룻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바) 그때는 우리 회사에 얹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 ① (가), (다), (마) ② (가), (나), (라)
- ③ (나), (라), (마) ④ (나), (다), (바)

16

해설 ③ [맞춤법, 표준어 규정]

(나) 되새기고: '이미 배운 것이나 겪은 일을 거듭 생각하다'는 뜻을 가진 '되새기다'의 활용형으로 올바른 표기이다.
(라) 뻗쳐: '뻗다'의 강조형인 '뻗치다'에서 '뻗치어'가 줄어든 말로 올바른 표기이다.
(마) 널브러져: '널부러지다'(X)가 아닌 '널브러지다'(O)가 표준어이다.

오답 피하기

- (가) '금새'(X) → '금세'(O): '지금 바로'라는 뜻인 '금시(今時)'에 '가' 줄어든 말은 '금세'이다. '금세'는 물건의 값을 뜻하는 다른 단어이다.
(다) '문제라든지'(X) → '문제라든지'(O): 나열된 것 중 선택을 나타내는 어미는 '-든지'를 사용해야 한다. '-든지'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의문이나 추측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어미이다.
(바) '얹좋은(X)' → '안 좋은'(O): '얹은'은 '아니한'의 준말이며, 문맥상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는 '아니'의 준말인 '안'을 써야 한다. 또한 띄어쓰기를 하여 '안 좋은'으로 적는 것이 맞다.

17. 밑줄 친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추가해야 할 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 북극 빙하가 녹는다.
북극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한다.
따라서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 해안 도시가 침수된다.

- ① 북극 빙하가 녹으면 생태계가 파괴된다.
- ②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 해수면이 상승한다.
- ③ 해수면이 상승하면 해안 도시가 침수된다.
- ④ 해안 도시가 침수되면 경제적 피해가 크다.

17

해설 ③ [논리와 지식]

주어진 두 전제를 연결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전제 1: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 → 북극 빙하가 녹는다.
- 전제 2: 북극 빙하가 녹으면 → 해수면이 상승한다.

이 두 문장을 이어서 추론하면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 해수면이 상승한다.'는 결론까지는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의 최종 결론은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 해안 도시가 침수된다.'이므로, '해수면이 상승한다'와 '해안 도시가 침수된다'를 연결해 주는 전제가 하나 더 필요하다. 따라서 '해수면이 상승하면 해안 도시가 침수된다.'라는 논제가 추가되어야 최종 결론을 논리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

논리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 지구 온도가 상승한다. → 북극 빙하가 녹는다. → 해수면이 상승한다. → 해안 도시가 침수된다.
-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18. <표준발음법>에 맞게 발음할 때 두 가지 이상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것은?

- ① 국물
- ② 놓고
- ③ 해돋이
- ④ 옷나무

18

해설 ④ [이론 문법]

옷나무 - [온나무](음절 끝소리 규칙) - [온나무](비음화)
나머지는 모두 음운 변동이 한 번 일어난다.

오답 피하기

① [궁물](비음화), ② [노코](자음 축약), ③ [해도지](구개음화)

[19~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혜자가 장자에게 말했다. “큰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사람들이 가축나무라 하더군. 그 나무의 본줄기는 웅이가 많아서 목재로 가공하기에도 적당치 않고, 작은 가지들은 굵고 휘어져서 뭔가를 만들기에 적당치 않네. 길가에 서 있는데도 목수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네. 지금 그대의 말은 이 나무와 같이 크기만 하고 쓸모가 없으니 사람들이 모두 떠나는 것일세.”

장자가 말했다. “자네는 살쥔이를 보지 못했는가? 몸을 낮추고 엎드려 있으면서, 나와서 노니는 작은 짐승을 노리는 놈들 말일세.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높은 곳 낮은 곳도 가리지 않지. 그러다 덫에 걸리기도 하고 그물에 걸려 죽기도 하지 않나.

그러나 지금 저 이우(麋牛)*는 그 크기가 하늘에 드리운 구름 같으니 매우 ㉠크다고 하겠지만 쥐 한 마리도 잡지 못하네. 자네는 큰 나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쓸모가 없다고 걱정하는군. 어째서 그 나무를 아무것도 없는 드넓은 들판에 심어 놓고 하는 일 없이 그 곁을 거닐고 한가로이 그 그늘에 누워 있으려 하지 않는가? 그 나무는 도끼에 찍혀 죽지도 않을 것이고 아무도 그 나무에 해를 가하지 않을 텐데. 쓸모없음이 어찌 괴로워할 일인가?”

*이우(麋牛): 티벳 고산에 사는 털이 검고 꼬리가 긴 소

1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혜자는 가축나무와 장자의 말이 모두 쓸데 없다고 생각한다.
- ② 장자는 살쥔이의 행동이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③ 혜자는 지나치게 큰 것은 쓰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 ④ 장자는 어떤 대상의 쓸모없음이 유용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19

해설 ③ [비문학]

혜자는 큰 가축나무가 목재로도 사용할 수 없고, 목수들도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크기만 하고 쓸모가 없는 것은 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장자는 살쥔이와 이우, 큰 나무의 예를 들어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 오히려 오래 살아남고 자유롭게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가치가 있다고 반박한다. 이 글은 ‘쓸모없음의 유용성(무용지용)’을 말하고 있다. 혜자가 비판하는 것은 지나치게 큰 것 자체가 아니라 크기만 하고 쓸모없는 것이다. 또한 장자는 큰 나무가 오히려 도끼에 찍히지 않고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오답 피하기

- ① 혜자는 가축나무와 장자의 말을 모두 크기만 하고 쓸모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 ② 장자는 살쥔이가 먹이를 잡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덫이나 그물에 걸려 죽을 수도 있다고 하여, 지나친 유용함이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음을 말한다.
- ④ 장자는 쓸모없어 보이는 큰 나무가 베이지 않고 오래 살아 자유롭게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쓸모없음에도 유용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20. ㉠과 같은 품사로 쓰이지 않은 것은?

- ① 동생의 키가 몰라보게 커서 친척들도 깜짝 놀랐다.
- ② 나는 씹씹이가 커서 주변에서 걱정할 때도 많다.
- ③ 강연자의 목소리가 커서 마이크도 필요 없었다.
- ④ 이번에는 성공할 가능성이 커서 모두 기대하고 있다.

20

해설 ① [이론 문법]

㉠의 '크다'는 사물의 크기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은 '크다'가 '자라다'의 뜻으로 쓰여 동작이나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이다.

오답 피하기

- ② 씹씹이의 정도가 많다는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 ③ 목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 ④ 가능성의 정도가 높다는 형용사이다.

21. ㉠~㉣의 함축적 의미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앞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 윤동주, 「서시」 -

- ① ㉠은 화자가 양심을 비추어 보는 거울이다.
- ② ㉡은 화자에게 닥친 현실의 시련이다.
- ③ ㉢은 화자가 생각하는 이상적 삶이다.
- ④ ㉣은 화자를 둘러싼 어두운 현실이다.

21

해설 ④ [현대 문학]

이 시는 화자가 부끄럼 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다짐과 순수한 이상을 끝까지 지키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길'은 화자가 앞으로 묵묵히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자신의 삶의 길, 사명, 실천 의지를 의미한다. 화자를 둘러싼 어두운 현실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피하기

- ① '하늘'은 화자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부끄러움이 없는지 살피는 양심과 도덕적 기준을 상징한다.
- ② '바람'은 작은 바람에도 괴로워했다는 표현을 통해, 화자가 겪는 현실의 시련이나 내적 갈등을 의미한다.
- ③ '별'은 화자가 노래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대상으로, 순수한 이상과 바람직한 삶을 상징한다.

22.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할머니가 √어린이날 √선물로 √운동화 √한결레를 √사주셨다.
- ② 오늘은 √구경도 √할겸 √물건도 √살겸 √재래시장을 √돌러보기로 √하였다.
- ③ 나는 √제 √7사단 √제 √9연대에서 √2년 √동안 √복무를 √하였다.
- ④ 내가 √가는 √데가 √어디인지는 √알려주고 √가야 √되지 √않겠니?

22

해설 ④ [띄어쓰기]

'가는 데'의 '데'는 '장소'를 뜻하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어디인지'의 '-니'는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 절의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시키는 데 쓰는 연결 어미이기 때문에 붙여 쓴다. '알려주다'의 경우 한글 맞춤법 제47 항과 관련이 있다. 본용언이 합성어나 파생어라도 그 활용형이 2음절인 경우에는 붙여 쓴 말이 너무 긴 것은 아니므로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붙여 쓸 수 있다. 따라서 '알려 주다'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되 '알려주다'로 붙여 쓰기가 허용된다.

오답 피하기

- ① '한'(수 관형사)과 '결레'(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는 띄어 써야 한다. '운동화 √한 √결레를'(O)
- ② '겸'은 앞말과 띄어 쓰는 의존 명사이다. '구경도 √할 √겸 √물건도 √살 √겸'(O)
- ③ '제(第)'는 접두사이므로 뒤에 오는 말에 붙여 쓴다. '제7사단', '제9연대'(O) 또한 '2년'은 수와 단위 명사가 결합한 형태이므로 붙여 쓸 수 있으며(띄어쓰기를 허용함), '동안'은 의존 명사로 띄어 쓴다. 따라서 '제7사단 √제9연대에서 √2년 √동안'(O)이 올바른 표기이다.

23. 다음 시조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사자성어는?

가마귀 열 두 소리 사람마다 꾸짖어도
그 샷기 밥을 물어 그 어미를 먹이나니
아마도 조중증자(鳥中憎子)는 가마귀가 하노라

- 김수장 -

- ① 반포지효(反哺之孝)
- ② 관포지교(管鮑之交)
- ③ 풍목지비(風木之悲)
- ④ 혼정신성(昏定晨省)

23

해설 ② [한자성어]

시조는 까마귀가 자라서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모습을 보며, 이를 효도의 상징인 ‘증자’에 비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조의 주제는 부모님에 대한 효도(孝)이다.

까마귀 열 두 소리 사람마다 꾸짖어도
그 새끼 밥을 물어 그 어미를 먹이니
아마도 조중증자는 까마귀인가 하노라

* 조중증자(鳥中憎子): 옛날 공자의 제자 중에 효심이 깊었던 증자의 이야기.

② 관포지교(管鮑之交): 관중과 포숙아의 사귄처럼 아주 친밀한 우정을 의미한다. ‘효’와는 관련이 없으며 친구 사이의 우정을 나타내므로, 주제와 관련이 없는 정답이다.

오답 피하기

- ① 반포지효(反哺之孝): 까마귀 새끼가 자란 뒤에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효도를 뜻한다.
- ③ 풍목지비(風木之悲): 부모가 돌아가셔서 효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슬픔을 이르는 말.
- ④ 혼정신성(昏定晨省): 밤에는 부모의 잠자리를 보살펴 드리고, 아침에는 문안을 드린다는 뜻.

[24~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언택트는 직접 대면을 피하고 접촉 빈도가 낮다는 점에서 사회관계가 네트워크 ㉠위주의 개인주의로 변화하는 것을 촉진한다. 타인과의 접촉이 적어지면서 개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자신과 타인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공동체의 삶을 이어가게 된다. 과거의 강한 공동체 연대가 서서히 사라지게 되는 환경 속에서 개인은 자신이 속한 집단 속에서 맺는 관계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되고, 자신의 생존 문제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인간 사회 ㉡네트워드를 스스로 선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끊어 내는 과정의 주체가 되며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방식을 관계 형성의 공간으로 ㉢선택한다. 이러한 관계를 맺는 형식에서 나타나는 연결을 느슨한 연대라고 한다.

느슨한 연대는 끈끈하지 않지만 연결되어있는 관계이다. 이것은 ‘따로 또 같이’라는 표현처럼 사회 구성원 간에 맺는 관계의 장점은 일부 취하면서 그러한 연결이 주는 부담과 복잡함의 단점을 줄이려는 태도에서 만들어졌다. 이런 태도는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개성을 존중하면서 공동체를 ㉣수용하는 것이다. 이는 집단주의적 관점에서는 다소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개인주의적 관점에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24.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회의 변화에 따라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변했다.
- ② 느슨한 연대는 온라인 공간을 기반으로 형성된다.
- ③ 느슨한 연대 속에서 개인은 주체적 태도를 가진다.
- ④ 전통적 공동체에서 개인은 정보를 많이 얻지 못했다.

24

해설 ④ [비문학]

지문은 사회 변화에 따른 공동체 인식의 변화, 온라인 공간을 기반으로 한 느슨한 연대의 특징, 그리고 그 속에서의 주체적인 개인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과거 전통적 공동체에서 개인이 정보를 얻지 못했다는 내용은 지문에서 찾을 수 없다.

오답 피하기

- ① 글에서 '사회관계가 네트워크 위주의 개인주의로 변화하는 것을 촉진한다'고 서술하며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 ②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방식을 관계 형성의 공간으로 선택한다'고 언급했다. 느슨한 연대가 온라인 공간을 기반으로 함을 보여준다.
- ③ '개인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끊어 내는 과정의 주체가 되며'라고 서술하여 개인의 주체적 태도를 설명했다.

25. ㉠~㉣을 바꿔 쓴 것으로 문맥상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중심
- ② ㉡: 연결망을
- ③ ㉢: 선출한다
- ④ ㉣: 받아들이는

25

해설 ③ [비문학]

'선택한다'는 '여럿 가운데서 골라 뽑는다'는 의미로, 여기서는 온라인이라는 공간을 관계 형성의 장으로 '결정한다'는 뜻으로 쓰였다. 그러나 ③ '선출한다'는 '선거 등을 통해 대표나 간부를 뽑는 것'을 의미한다. '선택하다'와 관련이 없다.

오답 피하기

- ① ㉠: '위주'는 '무엇을 주된 것으로 삼음'을 뜻하며, 지문의 '네트워크 위주의 개인주의'는 '네트워크 중심의 개인주의'와 의미가 같다.
- ② ㉡: '네트워크'는 '여러 개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뜻하므로 '연결망'으로 바꾸어 써도 의미상 차이가 없다.
- ④ ㉣: '수용하는'은 '남의 의견이나 요구, 사물 따위를 받아들인다'는 뜻이므로 '받아들이는'으로 바꾸어 써도 문맥이 자연스럽다.

2026년 군무원 국어 지역인재

	유형	2026
1	문법	3
2	어문 규정	4
3	어법	1
4	어휘	1
5	한자, 한자어	1
6	속담, 한자성어	1
7	비문학 독해	8
8	화법, 작문	
9	논리	1
10	문학	3
11	기타	

1. 2026년 군무원 지역인재 국어 시험 총평

2026년 군무원 지역인재 국어 시험은 국어의 기본 개념을 충실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한 시험이었다. 전반적으로 문법과 어문 규정의 비중이 높았으며, 문학과 비문학 독해, 논리, 어휘를 고르게 포함하여 국어 전 영역을 균형 있게 출제하였다. 특히 최근 군무원 시험의 출제 경향과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지엽적(枝葉的)인 내용을 묻기보다는 기본 이론을 실제 언어 자료와 다양한 제재에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많았다. 따라서 평소 기본서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학습을 하고 기출문제를 반복하여 풀이한 수험생이라면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험이었다.

2. 시험 난이도 및 특징

전체적인 난이도는 20세 이상 성인을 기준으로 '중(中)' 수준으로 평가된다. 문항 대부분이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며, 계산이나 복잡한 추론을 요구하는 문제는 많지 않았다. 다만 문법과 어문 규정에서는 세부 개념을 정확히 구별해야 하는 문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단순 암기만으로는 정답을 고르기 어려운 문항도 있었다. 특히 로마자 표기법, 불규칙 활용, 사이시옷 표기, 띄어쓰기, 표준 발음법 등은 규정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능력을 요구하여 기본기가 부족한 수험생에게는 다소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었다.

3. 영역별 출제 양상

- ① 문법 및 어문 규정: 비중이 가장 높았다. 활용형의 구별, 반의어의 유형, 로마자 표기법, 불규칙 활용, 사이시옷 표기, 음운 변동, 띄어쓰기, 품사 구별 등 핵심 단원이 폭넓게 출제되었다. '들르다'와 '들리다'의 활용, '르' 불규칙과 '러' 불규칙 활용의 차이, 음운 변동이 두 번 이상 일어나는 사례 등은 단순히 규정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언어 자료에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하였다.
- ② 어휘 및 한자어: 동음이의 한자어, 유의어, 어휘의 의미를 구별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표기는 같지만 한자가 다른 단어를 구별하거나 문맥에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는 등 실제 언어생활에서의 정확한 어휘 사용 능력을 평가하였다. 한자성어는 효(孝)를 주제로 한 시조와 연계하여 의미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확인하였다.
- ③ 문학: 고전시가와 현대시가 함께 출제되었다. 「도산 십이곡」, 「훈민가」, 「조흥시가」, 「오우가」, 「서시」 등 대표 작품을 활용하여 작품의 주제, 상징, 시어의 의미, 표현 의도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전체 내용을 암기하기보다 핵심 주제와 주요 시어의 상징성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 ④ 비문학 독해: 로봇공학, 인공지능, 미디어 리터러시, 언택트 사회와 느슨한 연대, 장자의 「무용지용」 등 다양한 분야의 제재를 활용하였다. 지문의 길이는 부담이 크지 않았으나, 글의 전개 방식, 중심 내용, 사례 적용, 접속어, 어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논리적 독해 능력을 평가하였다.
- ⑤ 논리 및 사고력: 문단 배열, 논리적 추론, 결론 도출을 위한 전제 찾기 등이 출제되었다. 단순한 국어 지식을 넘어 논리 구조를 파악하는 사고력을 함께 평가하였다.

4. 향후 학습 전략

- ① 문법 및 어문 규정: 체계적인 정리가 필수적이다. 불규칙 활용, 음운 변동, 띄어쓰기, 표준 발음법, 로마자 표기법, 품사, 단어의 형성 등 핵심 영역을 정확히 이해하고 다양한 예문에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규정을 암기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문장 속에서 판단하는 연습을 반복해야 한다.
- ② 어휘 및 한자어: 반복 학습이 가장 효과적이다. 자주 출제되는 동음이의 한자어, 헛갈리기 쉬운 어휘,

대표적인 한자성어를 꾸준히 정리하고 예문과 함께 익히는 것이 좋다.

- ③ 문학: 대표 작품을 중심으로 주제, 표현 기법, 상징, 시어의 의미를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작품의 세부 내용을 암기하기보다 핵심 메시지와 문학 개념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고전시가와 현대시는 반복적으로 학습해야 한다.
- ④ 비문학 독해: 꾸준한 읽기 훈련이 중요하다. 다양한 분야의 글을 읽으며 중심 내용, 논리 전개 방식, 문단 간 관계 등을 분석하는 연습을 지속해야 한다. 기출문제를 반복하여 독해 유형에 익숙해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5. 종합 의견

2026년 군무원 지역인재 국어 시험은 국어 전 영역을 균형 있게 출제하면서도 기본 개념의 정확한 이해와 적용 능력을 충실하게 평가한 시험이었다.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평이했으나, 세부 개념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 수험생에게 유리한 구성이었다. 특히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비문학과 관련된 문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단순히 비문학만이 아니라 문학, 문법 등 모든 문제에 지문을 제시하고 있다. 글을 읽고 이해하고 이를 문제에 적용하는 능력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앞으로도 기초 개념을 바탕으로 실제 언어 자료를 분석하고 적용하는 능력이 강조될 것으로 보이므로, 기본 이론을 철저히 정리하고 기출문제를 반복 풀이하며 문법과 독해를 균형 있게 학습하는 것이 고득점의 핵심이다.